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 “IT 융합기술 개발에 5년간 1조원 투입할 것”



**Q. 산업, 자원, 기술, IT를 총괄하는 지식경제부의 제1차관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장잠재력의 약화, 고유가와 물가 불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금융 위기 확산 등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제1차관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항상 '국가의 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지식경제부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연구소·대학 등 같은 목표를 공유한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Q. 지식경제부의 제1차관이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지식경제부의 업무 범위는 산업과 기술, 우정, 무역 그리고 에너지 등 매우 광범위하며, 저는 이 중에서 산업과 기술, 우정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조선 등 생산·고용·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로봇, 바이오신약 등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동시에 디자인, 컨설팅, SW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또한 지식경제부가 정부 R&D예산의 37.9%에 해당하는 4조 1천84억 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산업기술 R&D 총괄부처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산업기술 R&D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지경부에는 과거 산자부, 정통부, 재경부, 과기부 출신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물리적 융합을 넘어선 화학적 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조직 개편 이후, 우선 부내 인사를 통하여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과거 어느 부처에서 일했는지보다는 개개인의 능

력과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에 따라 인사 순환을 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어 지난 3월 말에는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좌표를 함께 설립해 나가기 위해 전직원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정책목표와 방향, 일을 풀어나가는 법칙을 지식경제부 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과 기술의 융합 추세에 맞추어 부서 간의 횡적 협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창조하는데 온 직원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Q.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과지향형으로 개편하겠다는 지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도 '연구개발의 경제성'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부가 '경제적 성과'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말씀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의 표현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먼저 반성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와 과학기술계가 생각하는 방향은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일치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대에 과학과 기술에 대한 분절적 사고가 팽배했던 데서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R&D의 성과는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 직접적 성과도 있지만, R&D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들의 자질 향상은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R&D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성과가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성과 지향적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오히려 과학기술계 전체가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안정감 속에서 보람 있는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경제성이란 말도 서로 오해하는 방향으로만 알려진 것 같습니다.

## Interview

다. 아시다시피, 연구개발 예산의 대부분은 일반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을 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사업도 투입과 산출의 대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보다 공개적이고 공정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Q. 산업기술연구회 산하의 출연(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출연연의 연구원들은 또 한 번 개혁의 바람이 휘몰아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은 우리 나라 경제의 산업화에 큰 기여를 했고 국가기술혁신의 중요한 주체로 역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출연연은 과거와는 다른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선진국 모방형 R&D에서 창조형 R&D에 대한 요구 증대, 민간 R&D역량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출연연 스스로의 위치와 좌표를 새로이 규명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출연연에 대한 통폐합(1981년, 1991년), PBS 도입(1996년), 연구회 체제 도입(1999년) 등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변화 시도가 있었지만, 출연연의 정체성과 연구생산성은 눈에 띄게 변화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출연연 문제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출연연 스스로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변화 의지가 기반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출연연에 대한 개혁과 변화가 외부로부터의 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개혁'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자발적 실천력을 얻는 공감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출연연발전기획단' 과 13개(부설연구소 포함)의 출연연 내부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발전방안의 주요 주제는 '출연연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성과 제고'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과제들로 PBS 개선, 성과평가시스템 개편, 조직 유연성 제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가고자 합니다.

**Q. 출연연의 PBS 제도를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PBS는 출연연 R&D 사업에 연구원이 개념 도입, 예산 투명성 제고, 경쟁을 통한 도전적·창의적 연구 활성화 목적으로 1996년에 도입한 연구과제 중심의 기관운영제도입니다. 그러나 PBS 도입 후 10년이 지난 지금, 출연연의 연구현장은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도전적·창의적 연구보다는 존립을 위한 R&D로 변질되고 있어 총체적인 연구성과 및 연구역량의 약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계 출연연들이 안정적·창의적 연구 분위기 속에서 '전문성을 지닌 성과형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PBS의 적정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산업기술계 출연연의 임무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안정과 경쟁이 조화될 수 있도록 PBS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구할 계획입니다.

**Q. 교육과학기술부의 출연연 관리 업무와 어떤 차별화와 협력 관계를 계획하고 있는지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모두에게 있어 출연연은 국가기술혁신 체제 내에서 산학연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는 중요한 혁신 주체입니다. 이번 연구회 이원화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 및 기초기술 분야에 대한 출연연 지원업무에 더욱 집중 지원하게 되고,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출연연별 특성과 전문성을 키우는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산업기술계 출연연은 국가차원의 산업원천기술개발 및 산업계 R&D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으므로 '시장지향적 R&D', '개방형 R&D'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출연연 입장에서는 교과부와 지경부 및 여타 부처의 R&D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PBS 조율 등 출연연 정책 전반에 걸쳐 관련 부처 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고자 합니다.







임채민 차관이 지난 4월 21일에 열린 시·도 경제국장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Q. 국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산업과 IT를 접목한 IT 융합기술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외환위기 이후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현재의 주력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등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거 요소투입형 산업구조를 지식·혁신형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을 담당해온 산자부와 IT산업을 담당한 정통부를 통합하여 지식경제부가 출범했습니다.

주력산업에 IT를 접목한 융합전략의 추진은 지식경제부 출범을 상징하는 과제입니다.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 간 컨버전스 시대로 IT산업이 다른 산업과 만날 때 IT산업도 발전하고,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이 고도화되며, 새로운 융합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 조선, 국방, 건설, 의료 등 우리 나라 5대 주력 산업과 IT융합 기술개발을 위해 31개 과제에 대해 총 706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5년 간 이 분야에 모두 1조 원의 R&D자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Q. IT의 동력이 꺼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경부가 추구할 '뉴IT' 국가전략은 어떻게 되나요?**

IT산업의 성장률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우리 나라 GDP의 17%를, 전체 수출의 33% 이상을 IT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출범으로 이제 디지털가전, 반도체, 통신기기, 소프트웨어(SW), 부품·소재 등이 하나의 추진체계 내에서 정책대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판이 된 것입니다. IT산업이 향후에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먹

거리가 되기 위해 산업 간 융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등 새로운 IT산업환경에 부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뉴 IT전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0회 이상의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여 '가칭' New IT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Q. 에너지 정책도 지경부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소비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실가스 발생원별로 볼 때 에너지부문이 84%이고 산업부문이 11.5%로 에너지 및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말씀하신대로 지식경제부의 감축정책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한편, 우리 산업계의 현실 및 녹색성장 등을 고려한 단기목표 및 중장기 국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환경적 기후변화 영향의 최소화가 정책의 목표이자 향후 방향입니다. 올해는 국제사회의 감축노력에 상응하여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고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는 중장기 국가 감축목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업종별 감축한계비용 및 대내외 경쟁력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목표와 국제사회 요구목표와의 절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대체,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Non-CO<sub>2</sub> 대체·처리 등 4대 핵심분야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CO<sub>2</sub> 포집 및 저장 등의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원천기술 조기

## Interview

확보는 물론 수소·연료전지(자동차기술), 풍력(기계, 조선기술), 태양광(반도체기술)등 국가 강점기술 분야와 접목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Q. 요즘 치솟는 기름값이 심각합니다. 휘발유와 경유값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에 대한 불만을 모두 정유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가 시대에 석유화학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유가 지속으로 주원료인 납사가격이 2008년 4월 1일 기준, 1톤당 900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0% 상승하여 석유화학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섬유·가전 등 주요 산업의 수요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전방제품 가격 인상이 제약된 상황으로 생산원가 상승 시 수요산업에 가격 전가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욱이, 산유국이나 신흥공업국들의 석유화학 투자가 급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석유화학업체는 정상 가동 중이나, 초고유가 지속에 따른 업계 채산성 악화가 감산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업계는 납사 대체원료로서 LPG(프로판, 부탄)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에 노력 중이고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석유화학기업들의 원가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LPG에 대하여 무관세화를 실시하였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화학소재 개발 및 원료 다

변화, 생산효율 향상 등 원가절감 기술개발에 올해 33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스전 개발+석유화학투자' 패키지형 자원외교를 통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동·중앙아시아 석유화학 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Q. 현장과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새 정부의 방향에 따라 지경부에서도 소프트웨어 담당 공무원들을 조선소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안은 마련하셨는지요?**

우리 나라 조선·자동차·건설 등의 주력산업에 소프트웨어(SW)를 적용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산업정책담당자들이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등 4개 지역 기업체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력산업의 핵심SW에 국산 SW를 적용하는 'SW융합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존의 전통산업에 대해서도 SW를 접목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관련 지원정책을 장려할 생각입니다.

**Q. 지경부의 입장에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한 국가의 부와 미래는 자본과 노동보다는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MS의 CEO 스티브 발머는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과학기술계 전문가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TF를 구성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에 과학기술계의 여러분의 지지와 능동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과학기술계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연구소·대학 등 여러 과학기술인들의 기술 혁신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보다 굳건한 협력이 우리의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Q.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경부의 큰 발전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